

# 상상력

그리고

# 실험성

## 우진문화재단 신예작가초대전

우진문화재단이 제27회 신예작가초대전을 연다.

전시에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미술계에 첫 발을 딛는 신예작가 김보미·오혜은·조은익(군산대), 오주희(예원대), 김민주·박지민·양정숙·조민지(원광대), 남영은·박진영·최무용(전북대) 등 11인이 작품을 출품했다.

이들 작가들은 이번 전시에서 상상력과 실험이 돋보이는 작품을 보여준다.

김보미는 '나는 나라는 존재가 답답하다'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기로 다짐, 주변사람들의 시선과 사회의 잣대에 맞춰 살아가는 이들의 불안감을 형상화 한다.

오혜은은 우리에게 잊혀져가는 세월호의 충격과 아픔의 기억을 'remember me'에서 상기시킨다.

조은익의 설치작품 '미성숙'에는 세 개의 벽면으로 에워싸진 공간과 움직임·소리에 반응하는 빛이 자리한다. 빛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충동을 상징하며, 작가는 빛의 제어를 통해 인간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인간 관계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도했다.

오주희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됨에 따라 사고가 경직되고 소통이 단절된다고 생각, 이러한 삶에 하나의 화두를 던진다. 그러면서 사과라는 오브제를 통해 '고민하라. 상상하라 그리고 소통하라!'고 이야기 한다.

김민주는 장난감 하나만으로도 행복과 만족감을 느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회상하며, 보랏빛 물감으로 캔버스 위에 풀어낸다.

조민지는 다양한 할머니의 기억들을 모으고



양정숙 '해치지 않아요'



김민주 '차일드후드'



박지민 '길'

분류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반복, 바느질로 재현해 낸다.

박지민의 '길'에 그려진 끝을 알 수 없는 계단은 마치 피비우스의 띠를 보는 듯하다. 작가는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서로 연관돼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다.

양정숙은 '해치지 않아요'에서 줄자 안에 숫자까지 빈틈없이 맞추어진 빌딩들의 끝없는 상승을 패러디 하고 있다. 이는 이 사회가 추구하는 성공과 행복의 이상을 향해 수직상승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 완벽을 쫓는 강박의 공포와 실패의 두려움이라

는 허상을 반복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남영은의 작품에 등장하는 찌그러진 강통은 소모품화 되는 인간을 빗대고 있다.

박진영은 차별받고 살아가는 어느 여자의 고백을 '양자의 그녀와 음지의 그'에 담아낸다.

최무용은 눈의 움직임을 소재로 한 키네틱 아트를 선보인다. 작가는 인간의 눈에서 시작된 시선이 끈처럼 연결되고 확장되어 끊임없는 관계를 형성한다고 여감과 동시에 가벼운 관계라는 한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는 28일까지 우진문화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정해은 기자

##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캘리그래피 회원전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갤러리'소소는 15일부터 2주 동안 캘리그래피 회원전을 연다.

수강생들의 작품으로 꾸며지는 이번 전시는 수강생들이 그동안 강화를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는 자리다.

지난해 12월 조성된 '갤러리 소소'는 지역주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활성화 및 상호교류를 위한 공간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해 12월에는 수채화 김선희 회원전을, 올해 2월에는 수채화 장경숙 회원전과 전북도 무형문화재 임재수 선자장의 작품전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천수 관장은 "이번 공간 조성을 통해 회원들의 생활문화 활동을 독려하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길 기대하며, 지역주민들이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진북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063-275-0186)로 문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오늘 전북대 국문과 연극동아리 '몸짓' 무대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연극 동아리 '몸짓'이 서른 번째 공연을 갖는다.

16일과 17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건지아트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서울 대학로 등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버스를 놓치다'란 작품이다.

작품은 한적한 바닷가 정류장에서 버스를 놓친 세 사람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지난 일에 미련이 남는 평범한 우리네 모습을 그려내며 관객과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극은 찌질남 동혁이와 당찬 지영, 그리고 어딘가 특별한 아줌마 이 세 사람이 언제 다시 울지 모르는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리며 한 명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전개된다. 세 명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같고, 배우들의 연기는 나를 보는 느낌을 전한다. 역지스러운 감동과 웃음을 강요하지 않고 관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연의 관람료는 전 좌석 5000원. 예매 문의는 전화(010-5248-5644)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 '섬진강 시인' 김용택이 말하는 문학이란? | 22일 국립전주박물관 인문학강좌

국립전주박물관은 '2018 인문학 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인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명사들을 초청, 그들의 작품세계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오후 6시 30분 첫 강연에선 김용택 시인이 '섬진강 시인이 말하는 삶과 문학!-자연이 말하는 것을 받아쓰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김 시인은 기술이 무한히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주목되고 있는 인간적 감성에 대해 강연한다. 이와 함께 오프닝 공연도 마련돼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과정을 수료한 신주영, 심수현 연주자의 가야금과 해금의 협주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4월 19일에는 한국화가이자 한국목자연구회장인 송민규 화백이 '물방울에서 자유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세 번째 강연은 우리나라 근대 음악사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이영미 문화평론가의 '현대 대중음악의 원류를 말한다-닐너리아와 리턴음악의 비법'이 5월 17일 예정돼 있다.

참가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http://jeonju.museum.go.kr>)에서하면 된다. 행사당일 여유 좌석이 있을 시엔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